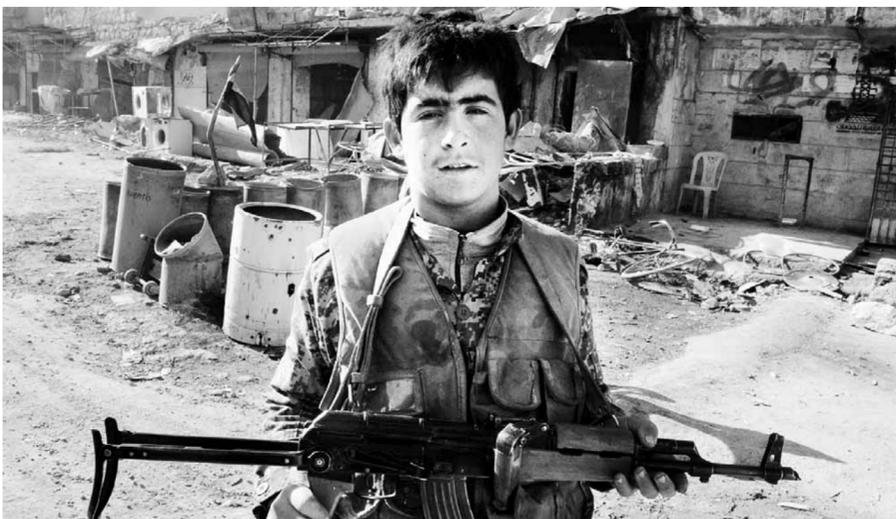


성탄 앞두고 유럽 감싼 테러 공포



폐허 마을의 병사 20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주인 7000명이 알레포 내전 지역에서 철수한 가운데 정부군이 폐허가 된 알레포 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추모장의 난민 소년 20일(현지시간) 한 난민 소년이 '모두를 사랑하라-누구도 증오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옷을 입고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가 발생한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터키 '불안한 동거' 유지

시리아 내전 두고 대치 관계
러시아 대사 저격 배후 미궁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저격 사건의 배후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시리아 사태를 두고 긴장 관계에서 화해 분위기로 나아가던 양국 관계가 당분간 '불안한 동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양국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변함없을 것을 강조했다.

또 20일(현지시간) 이란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3국이 시리아 평화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저격 사건이 지난해 11월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처럼 양국 관계의 극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양국이 서로 대안이 없는 상황을 보

여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일했던 터키의 전직 외교관인 무라트 빌한은 "터키도 러시아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반대를 선호할 것"이라며 "당장 터키는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 역시 터키가 필요하다"고 FT에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는 지난해 11월 터키가 자국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면서 날카롭게 대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화해하면서 화해 분위기로 급변했다. 여러 사안에서 서방과의 관계가 결리려온 양국이 전략적으로 손을 잡

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 시리아 알레포 사태에서는 유엔과 미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 역할에 나섰다.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캐나다연구소의 알렉산데르 슈밀린 소장은 "러시아와 터키는 이미 함께 시작한 일을 유지하고 서로 위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알레포 철수 과정에서 시아파 반군이 러시아와 터키의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휴전이 무산돼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양국관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한계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한 터키 관계자는 당시 터키의 제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였지만, 시리아 정부가 거부했다며 "러시아가 진실한 것인지, 시리아가 진실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이란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진범 못 찾은 독일 추가 테러 비상

트럭 용의자 확증 없어 석방
IS 배후 자처 진위 파악 중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베를린 트럭 테러를 수사 중인 독일 당국이 유일한 용의자를 석방하고 범인 검거작전을 재개했다.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했으나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무장한 채 잡히지 않은 테러범이 추가 범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AP·dpa 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20일(현지시간) 트럭 돌진 테러 용의자로 체포됐던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나베드 B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고 나서 테러범을 추적하고 있다.

나베드 B는 테러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전승기념탑 근처에서 복잡한 후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쓰인 스카니아 트럭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수사당국은 용의자 석방 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기를 소지한 테러범이 잡히지 않은 만큼 추가 범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유럽에게 빈번하게 테러를 자행한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해 우려는 더욱 크다.

IS는 이날 연계 매체인 아마크통신을 통해 독일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아마크통신이 인터넷에 게재한 성명에 따르면 IS는 "(IS 격퇴) 국제연맹 잠

가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요청에 IS의 한 전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 배후에 IS가 있는지, 테러 기획과 실행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는 테러를 실행한 범인과 관련한 추가 단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IS는 이번에 배후를 자처하면서도 누가 공격을 실행했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발생한 IS 연계 테러 사건 상당수는 IS가 기획하고 조직원에게 지령을 내려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각지에 있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IS 사상에 도취해 자의적으로 저지른 테러였다.

IS가 불특정 추종자들에게 서방을 공격하라고 선동하고 나서 실제 테러가 발생하면 "우리 전사가 한 일"이라고 발표하는 식이다. /연합뉴스



멕시코 폭죽시장 폭발 최소 29명 사망

경찰, 원인 파악 중

20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교외의 한 야외 폭죽시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29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폭발은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톨테펙에 있는 산 파블리토 폭죽

시장에서 발생했다. (사진) 폭발이 일어난 후 시장 일대는 하늘로 치솟는 울긋불긋한 불꽃과 거대한 연기로 뒤덮였다.

경찰은 당초 사망자가 9명, 병원이료 옮겨진 부상자가 70명이라고 밝혔으나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색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파블리토 폭죽시장은 멕시코에서 가

장 유명한 폭죽시장 중 한 곳이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이 시장에서 늘어난 가판대에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난 적이 있다.

많은 멕시코인은 큰 소리가 나는 폭죽을 터뜨리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공휴일 등을 기념한다.

폭발의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독일 베를린 시내의 크리스마스 마켓 트럭테러로 12명이 사망한데 이어 멕시코 시티 폭죽시장 폭발로 연말 사건사고 및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테러팀 인선 지연...美 안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대(對)테러팀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선거 과정에서 테러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고던 공언과 달리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대테러 주요 보직 인선이 지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백악관 국토안보·대테러 보좌관의 인선을 아직 하지 않은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정보국장(DNI) 후임자도 미정이다. 이밖에 대테러 추무부서인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장, 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은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앞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군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옥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